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10절
- 찬송: 찬송가 159장(새찬송가 161장)

#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사람”

육신이 때로는 오랜 세월을 지나지도 못하고 일찍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육신을 무너지게 하는 질병의 수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마시는 공기과 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도 됩니다. 오염되고 독소가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실조뿐 아니라 과다 섭취한 음식물이 죽음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체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하잘것없는 혈전(血栓)이 폐나 심장의 혈관을 막아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양이 적거나 많아도, 백혈구 수가 적거나 많아도 모두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종류를 다 알 수 없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덤벼들어 때 이른 죽음을 재촉합니다. 어찌되든 간에 장막 같은 인간의 육신은 결국 무너지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종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멸절이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모두 인간의 영혼이 입게 되는 몸과 결부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입게 될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부활한 몸이 가지는 특성을 말해 줍니다. 부활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영광스러운 몸’ (고전 15:43), ‘신령한 몸’ (고전 15:44), ‘찌지 아니하는 몸’ (고전 15:53)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성도들에게는 영원토록 존속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므로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현재시제로 말한 것은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으나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여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나타낼 때 미래적 현재용법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다른 사실을 미루어 헤아려 보는 식의 유추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얻게 된 계시는 특별한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적 계시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후 12:1-4).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체험한 사실을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 만 두노라” (고후 12:5,6).

그는 이러한 신령한 계시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보통이상의 사람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환상 체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낙원에서 받은 계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한 몸에 대하여 현재시제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이러한 체험적 계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리고 장막 같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탄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은 ‘신음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쉬임없이 계속되는 신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식’이나 ‘신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와는 차별된 의미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탄식하여’라는 낱말은 ‘몸의 구속’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전제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표현은 ‘몸의 부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미치는 은혜입니다. ‘몸의 구속’은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상태입니다. 본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 혹은 신음이란 부활한 몸을 입는 그 날을 심히 갈망하며 고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벗은 자들’이란 표현은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로 오는 처소’로 덧입게 되지 못할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본문 4절에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가져오지만 그런 상태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영혼과 육체는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죽을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온갖 제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탄식은 육신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가리켜 ‘죽을 몸이 생명에 의해 삼킨바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 집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전 15:53,54)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몸의 변화를 확신하고 부활될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증’이라는 낱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상업적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총액 가운데 첫 번째 분납금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진실하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이 믿음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대하여 몸을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신자는 신비적 연합을 이룬 상태에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계시된 이러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의 관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담대하고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의 실상에 대하여 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 1:21~24)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의 행복에 대해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던 성도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의외로 만족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저기 흰옷 입은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평안히 운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길에 곤란을 당하여 힘들지라도 항상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까지는 알 속에 안락한 곳이었을지라도 알껍데기를 깨트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환희의 소리를 지르게 되듯이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 때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혼은 천사의 환영과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뵈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황홀한 기쁨과 행복감은 지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복된 날을 고대하는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날에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은 몸을 가지게 되는 날입니다.

**본문의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10)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바리새인의 아니꼬워하는 눈길을 의식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비난 따위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고려할 것 없습니다. 그들의 판단 따위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혹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여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심판대는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 심판하시는 곳은 회고 큰 보좌 심판대입니다. 공로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공홀 없는 심판대입니다. 이곳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심판 받는 곳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심판 받는 곳입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심판 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1~1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의 이름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구속을 받은 자들은 회고 큰 보좌 심판 대와는 무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할 때가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하여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29).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찌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가 지은 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땅에 있는 장막 집인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